

## 28개 회원사 전시회 참가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달 17일 2008년도 1월 정기 월례회 겸 공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서 최상식 회장은 “어려웠던 작년을 회고하면서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김포산업(주) 및 (주)제팩 등 신입 회원사의 소개와 인내가 있었으며 각 회원사별 인사가 있었다. 특히 산업자원부로부터 2008년도 브랜드 전시회로 선정된 KOREA PACK의 진행사항과 인내가 있었다 또한 국내 전시회인 KOREA PACK 전시회의 효율적인 참가 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집중됐으며 개최주기, 개최시기 및 전시장 배치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최주기 2년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기계장비의 개발기간으로 보아 2년에 1회 개최가 최적이라고 강력 요망했으며 개최시기 역시 일본 또는 중국의 유명 전시회와 상호 연계해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바이어의 내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됐다. 특히 2008년부터 서울 국제식품대전과의 동시 개최가 KINTEX 전시장의 SPACE 협소로 인해 불가하게 돼 해외 바이어가 급감하게 될 것이



▲ 한국포장기계협회 월례회 겸 공장방문

라는 예측으로 KOREA PACK 전시회가 국내 전시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외에도 (주)제팩(대표이사 이준제) 공장방문이 있었고, (주)리팩의 이일해 사장의 스폰 아래 저녁 만찬이 진행됐다.

**환경보전협회**

**국제환경기술전 6월 개막**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장**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 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경기술전(ENVEX)을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환경기술전은 환경전시회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연속 국가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업체 및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며 많은 업체가 자사의 환경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지난 전시회에서도 24개국 2백55업체(국내 : 1백59, 국외 : 96)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신기술과 신제품(NEP) 등 2천여점의 전시품이 소개됐다. 또한 동 행사기간 중 국제환경기술세미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설명회, 수자원환경기술포럼,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세미나 발표회, 기술이전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포스터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2008년도에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와 제품판매 증대 및 환경산업 수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환경산업체의 제품홍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주요 국제환경전에 한국관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바이어의 국내 전시회 참가 유도 및 국내 기술 수출계약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소포장 의무생산, 생산업체 재고부담**

**업계의견 교류의 장 마련**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조사 결과, 제약업체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포장 대상업체 1백82개사 중 보고업체 1백25개사(68.6%)의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1백25개사의 소포장 대상 품목 수는 4천7백90개이며 이중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품목 수는 4천4백76개(이행비율 93.4%)였다. 4천4백76개 품목의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은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고 있었으며, 소포장 생산 4천4백76개 품목의 재고비율은 평균 24.4%로 나타났다.

또한 4천4백76개 품목 중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이 2천3백90품목에 달했으며, 1백% 모두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백67개, 1백% 이하 75%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1천2백88개, 75% 이하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백35개이었다.

제약협회는 불용재고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생산업소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제도의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제, 캡셀제형의 모든 의약품에 10% 의무생산을 적용하는 대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생산비율을 10%로 일괄 규정한 조항 또한 과년도 재고를 고려하여 생산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재고와 부대비용 증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또 희귀의약품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약품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해야 하며, 생산할수록 손해이거나 저마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 악화돼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의약품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정의도 1일 사용량이 2~3정·캡슐임을 감안, 30정·캡슐에서 1백정·캡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랍 27일부터 지난 달 16일까지 실시됐으며, 소포장 대상업체 1백82개사는 2006년 정제 및 캡셀제형 전문의약품 생산현황 및 2007년도 신규 품목허가 현황에 근거하여 도출한 수치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양곡표시제 쌀 품질표시 지도단속 강화

### 이달 부터 양곡표시제 강화, 등급, 백질 함량도 표시 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출장소장(소장 조상준)은 양곡표시제와 관련하여 쌀 포장양곡의 경우 의무 표시사항외 권장표시사항이 이달부터 추가됨에 따라 되어 양곡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쌀·현미, 보리쌀, 콩, 잡곡 등의 양곡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을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산물로 판매할 때 해당농산물의 포장재나 풋말에 생산년도,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중량 등 판매양곡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양곡표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등의 가공업자와 유통업체, 양곡상 등의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포장화하여 판매되는 양곡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나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명(또는 성명)·전화번호는 의무표시 사항이다.

쌀과 현미의 경우는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해야 하고, 등급·단백질 함량·품종순도·완전립비율은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로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산물로 판매되는 것은 원산지만 표시해도 되지만 쌀과 현미의 경우는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을 추가표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최고, 가장 좋은 등의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하면 안된다.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하면 5만원~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과대의 표시·광고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나(1백kg 이상), 허위표시사항을 신고시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

**고무용기, 납·카드뮴 검출**

**식품공전, 재활용플라스틱 식품 용기 규격 없어**

재활용플라스틱 큰 대야(일명 고무다라)에서 납이 최고 1백7ppm까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는 합성수지제로 만든 납과 카드뮴 검출 기준은 있어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품 용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은 없어 납 검출에 따른 제재 혹은 대책이 없는 상태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욱)은 재활용플라스틱 큰 대야를 대상으로 납과 카드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이 된 13개 제품 모두에서 납이 검출되었으며,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도 검출됐다"고 전했다. 금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소시모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것으로 재활용플라스틱 큰 대야에서 납, 카드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검출된 납의 양은 최고 1백7ppm에서 최저 19ppm이다. 이같은 결과에 소시모는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품 용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1백ppm 이하로 납 검출 기준을 두고 있는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따라서도 조사대상이 된 제품 중에서 1개 제품은 1백7ppm으로 규격을 위반했음을 전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자신들의 요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재활용 대야에 대한 제조실태를 파악해 현행 재

질별 규격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식품용으로 판매시 식품용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소시모는 금번 결과에 "금속 등 오염물질처리가 잘 되지 않은 재활용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재질별 규격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 소비자 유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

제59회 정기총회 개최

## 2008 '4대 중점사업' 발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달 23일 호텔신라 영빈관에서 김명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회원사 대표 및 각 언론사 대표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 사업보고, 결산과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의결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코스맥스(주) 손의락 상무이사, (주)아모레퍼시픽 최선자 부장, 샤넬(유) 임금숙 부장, (주)마임 조태현 부장, (주)코리어나화장품 이은숙 과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CGMP등 품질 향상에 노력한 (주)코스메카코리아 유종성 대표이사, (주)에스티씨나라 이계호 대표이사, (주)제닉 유현오 대표이사, (주)세화피앤씨 이훈구 대표이사, (주)아이피어리스 민양기 대표이사가 대한화장품협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산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 나성용 통상협력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윤미옥 의약품평가부 연구관, 한국소비자원 손영호 생활안전팀장, 뷰티누리(주) 박재홍 부국장, 일간보사 정부재 차장이 대한화장품협회 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경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장래가 우리 모두의 어깨에 달려 있음에 긍지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고히 하여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배양에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화장품협회는 4가지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화장품협회는 4가지 중점 사업으로 △ 화장품 산업계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법규·제도 개선 △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 국제 변화 대응력 강화 △ 화장품산업 이미지 제고 사업 등을 꼽으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제도개선을 위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조 판매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인식에 기초한 화장품 범위의 확대와 산업 분류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화장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또한 유통업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한 원료 취급 관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취지의 '원료관리 제도'도 바뀌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도 개선해 안전성, 유

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의 지속적인 간소화도 이뤄나갈 방침이다.

화장품협회 측은 “말이 많았던 표시광고 규제도 합리화 해 나갈 방침”이라며 “화장품 효능과 효과 범위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기존 화장품들이 제조일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화장품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했으며 국제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 타결과 한 EU, 한 중 FTA 추진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b>한국소비자원</b>	<b>1회용 분유스틱 일부 안전성 문제 발표</b>
---------------	------------------------------

### 해당업체 걱정조치 건의

시중에 유통되는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 일부가 포장이나 유통기한 표시 등에 문제가 있어 변질, 부패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4개사의 1회용 조제분유 스틱 10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이란 아기가 1회 섭취하는 용량(보통 13~14g)의 조제분유를 합성수지 재질로 포장한 제품으로, 1회용 커피믹서 형태다.

소비자원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 등의 1회용 조제분유를 조사한 결과,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 표시방법이나 판매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1회용 조제분유 스틱 제품의 유통기한은 12~18개월인데도 2개사의 제품은 내구성이 큰 캔 제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18개월로 설정돼 유통기한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1회용 제품의 경우 원래 유통기한이 8개월이었으나 타사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최근 12개월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4개사 전제품 모두 유통기한 표시는 마찰에 의해 쉽게 지워졌다. 또 충전된 질소가 빠져나가 부패의 원인이 되는 등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브랜드의 경우 조사대상 1백10개 제품 중 42개(38%)가 유통과정시 외형적 파손 또는 포장재질의 접촉불량에 의해 충전된 질소가 빠져나가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통 과정에서 캔 제품에 1회용 제품을 낱개로 부착해 증명하는 판매 방식은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 유통기한 설정 기준 및 지표 마련 ▲ 업체별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정 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체에 ▲ 포장 관리 철저 ▲ 유통기한 단축 ▲ 비매품 제공 방법 시정 ▲ 표시 기준 준수 등을 권고키로 했다.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

## 비넥스포 아시아-태평양 전시회 설명회 개최

### 아시아 대표적 와인 및 주류 전문 전시회로 자리 매김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는 지난 달 2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7회 비넥스포 전시 설명회를 열었다.

해외 개최 제 7회째를 맞이하는 비넥스포(Vinexpo) 전시회는 올해 5월 27일에서 29일까지 홍콩 컨벤션 전시 센터(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다.

비넥스포 아시아-태평양 전시회(Vinexpo Asia-Pacific)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와인 및 주류 전문 전시회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세계 최고의 와인 및 주류 업체들이 아시아-태평양 18개국 바이어들에게 자사의 상품을 소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홀수년도에 개최되는 국제 와인 및 주류 전시회인 Vinexpo는 1998년, 떠오르는 신흥시장에서 그 지역 와인 및 주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를 런칭하게 됐다.

최초의 Vinexpo 해외 전시회 개최지로는 아시아의 홍콩이 선택됐다.

첫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2000년과 2002년에는 도쿄에서 열렸으며 2002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아메리카 전시회를 런칭했고, 2년 후 시카고에서도 개최된 데 이어, 2006년에는 출품업체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다시 홍콩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부분의 와인 생산국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칠레, 영국, 포르투갈, 중국, 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하며, 주요 참가 와인 업체로는, Henkell & Sohnlein Sektellereien (독일), Dynasty Fine Wines (중국), Santa Rita (칠레), Marques de Caceres (스페인), Banfi Distribuzione (이탈리아), Santa Margherita (이탈리아), Baarsma Wine Group (네덜란드), Sogrape (포르투갈) 등이 있다.

프랑스 역시 대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2006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농식품 진흥청이 구성하는 프랑스관이 1천m<sup>2</sup> 규모로, 프



▲ 지난해 열린 비넥스포 아시아-태평양 전시회

랑스 와인 업체들을 이끌고 참가하게 된다.

한편 Vinexpo Asia-Pacific 전시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 《L'Universite (University)》는 매우 주목받는 행사로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상품을 찾거나 와인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픈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vinexpo.com](http://www.vinexpo.com)를 참조하면 된다.

포장종합기술지원센터

패키징 정부포상

### 친환경 패키징 국제회의 개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계민)가 주관하며 한국 포장기술사회가 후원하는 정부포상 행사가 오는 5월에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정부포상 행사는 오는 5월 27일부터 일산 KINTEX에서 열리는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 패키징 제품 및 기술,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부문별 산업자원부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상, 한국생산기술원장상을 시상하며 우수공로자에게는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와함께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 기간에는 아

시아 친환경 포장규격 마련을 위한 ISO (예비) 국제회의/환경배려포장 및 국제 환경 패키징 기술동향 소개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한 '친환경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포장종합기술지원센터는 매년 이 행사를 발전시켜 포장업계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국제행사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지난해 열린 비넥스포 아시아-태평양 전시회